

## 질병과 의료로 보는 한국인의 근현대사

### ‘현대인의 탄생’ 전우용 지음

1945년 8월 해방을 맞은 순간부터 1953년 7월 한국전쟁 종전까지 8년간은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혼란기였다. 또한 이 기간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난의 시기였다.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를 지낸 전우용씨가 쓴 ‘현대인의 탄생-해방~한국전쟁까지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때까지 격동의 근대사를 관통해온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 양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보고서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간 한국은 말 그대로 ‘의료의 사각지대’였다. 해방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군중들이 굶주린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 페스트와 콜레라, 두창,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했다. 1948년에 태어난 44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40%에 달하는 18만 명이 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또한 정장년층 사이에서 파진 결핵, 성매매 중사 여성의 증가로 확산된 성병, 그리고 해방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마약 공금으로 인한 마약 중독이 3대 ‘망국병’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전쟁 시기에는

‘질병과 교통의 전시장’이었다. 폭격의 피해뿐만 아니라 동상, 영양실조, 전염병 등으로 사상자가 이어졌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 200만 명이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1951년 8월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9%가 영양부족 상태였으며 광범위한 영양실조와 기생충 감염은 빈혈과 설사, 피부병 등을 국민병으로 만들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한 간호장교는 “북부 총상을 당한 한국군을 수술할때는 위축에서 수 십, 수 백 마리의 징그러운 기생충을 꺼내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 시기 민간인이 처한 환경은 군인보다 더 열악했다. 1940년 경 40만 명 이었던 결핵환자는 해방이후 5년간의 혼란 속에서 120만 명으로 늘었고, 전쟁 1년 여 만인 1951년 10월에는 28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부상을 앓아터진 상처는 종종 파상풍과 패혈증으로 이어졌고 두창, 페렴, 수막염, 간염 등도 아주 흔한 질병이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후방의 군인들과 피난민은 수시로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예방접종을 할 주사



1940년대 후반 한국의 거리에서 보행자들에게 DDT(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출처: 눈빛 사진집 '지울 수 없는 이미지', 이순출판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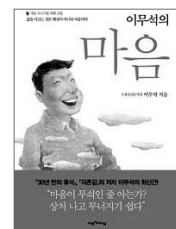
가마져 부족한 상태였다. 이처럼 저자는 방대한 자료조사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질병, 보건행정, 의사-의료시설의 역사를 마치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듯 꼼꼼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결론적인 ‘한국인, 의학의 눈으로 제 몸을 보다’는 장에서 “전쟁이 죽음을 사람들 주변 가까이 운 곳에 끌어다 놓음으로써 한국인들이 청결과 위생 담론을 내면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 “현대인은 의학의 선으로 자기 몸과 생활습관, 주변환경을 살피고 교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그런 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보건의료사는 현대 한국인의 탄생사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구 주제도 독보적이며 논증을 위해 수집한 자료집과 통계, 신문과 잡지, 사진 등은 사료적 가치가 충만한 것들이다. <이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인생의 성패 결정하는 올바른 마음 관리법은

### ‘이무석의 마음’

이무석 지음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인정한 국내 5명의 국제정신분석가 중 한 사람인 이무석(66·전남대 의대 명예교수)씨가 일상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마음 관리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이무석의 마음’을 출간했다.

책은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강군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강군의 아버지는 총체와 성공에 집착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들은 폭식증으로 체중이 20kg이나 불었다. 아내는 ‘마음이 없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강군의 가족은 가족치료 시간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후 아들의 폭식증도 사라졌다.

마음이 얼마나 신비하고 위력적인지 생생하게 알려 주는 책은 또 직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를 들어가며 올바른 마음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외에도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는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 에너지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좋은 수면 방법 등을 소개한다.

재정 관리, 건강 관리 하듯 마음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눈빛 하나에도 상처 받아 아프고, 자존심 건드리는데 말 한마디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 마음이다”며 “마음을 잘 살피고 관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이씨는 1980년대부터 전남대병원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정신분석학회장, 대한심리정신분석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정년퇴임하고 현재는 서울 청담동 정신분석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비전과리더십·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부동산 재앙에도 희망은 있다

### ‘부동산 아리랑’

구연상 지음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부동산 쓰나미를 풍자한 소설 ‘부동산 아리랑’이 나왔다.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의 총무이사인 구연상(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씨가 맑고 쓴 그의 첫 장편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한창국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비록 별이 성공하지는 않지만, 저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고 믿으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폭풍에 휩쓸리게 되는데...

작가는 삶의 보금자리야 할 부동산의 상품화가 삶

의 거주지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뿐만 아니라, 행복만 가져다주는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동티(땅을 더럽혀 받게되는 재앙)-메마른 땅 뒤를리는 집’과 ‘부동산 바벨탑-돈 바닥 위에 지어진 집’

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 정교하게 고발한다. 하지만 소설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저자는 “부동산이 아무리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한 싹날같은 희망만큼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주어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전문 작가가 아니라 소설적 구성은 다소 엉성하지만 유쾌하며,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작품이다. <책문·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의 대가들’

### ‘인플루언서’

조셉 그레니 외 지음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조셉 그레니와 그의 팀이 20년 동안 남아공, 멕시코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영향력 원천과 전략을 분석한 ‘인플루언서’를 출간했다.

책에서 말하는 인플루언서는 범죄자와 마약중독자를 모범적인 시민으로 변모시킨 텔레비전계급의 설립자인 미미 실버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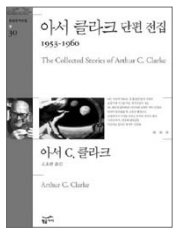


하는 사람이다. 빈민을 가난에서 끌어낸 사람이나 문맹자들에게 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을 독려한 사람,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돕은 사람 등 ‘영향력의 대가’를 만날 수 있다. 책은 이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리더십이 모든 변화의 기본이 되는 영향력을 새롭게 제시하고, 누구도 모면치 못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한 다. <김영사·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클라크 1주기... 초기 단편 104편 수록

### ‘아서 클라크 단편 전집’

아서 C. 클라크 지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을 쓴 과학소설(SF)의 거장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C. 클라크(1917~2008년)의 1주기를 맞아 그의 초기 단편 전집(전 2권)이 나왔다. 이번 전집은 지난 1937년 발표된 첫 작품 ‘유선전송’부터 1999년 과학소설 최초로 네이처지에 수록된 ‘이웃을 교화하자’까지 클라크가 발표한 104편의 단편을 모두 수록한다. 먼저 1953~1999년에 쓴 후기 작

품 65편을 두 권으로 묶어냈다. 수록작품들은 휴고상과 네뵈브러상 등 유수 SF 문학상을 석권한 클라크의 작가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 미 항공우주국(NASA)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한 작가의 놀라운 식견을 확인시켜 준다. 1937년부터 1953년까지 초기 단편 39편을 묶은 나머지 두 권의 작품집도 올 가을 출간될 예정이다. <황금가지·각권 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우리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그림 이야기

### ‘옛 그림 보면 옛 생각이 난다’

손철주 지음



줄기는 짙은 먹으로 칠하고, 꽃은 옅은 먹으로 그려 넣은 18세기의 그림 ‘들국화’에는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는 낙관이 새겨져 있다. 풀이하면, ‘온갖 물줄기를 고루 비추는 밝은 달의 임자’라는 뜻이다. 그림을 그리 이는 정조다. ‘그림 보면 옛 생각이 난다’의 저자 손철주의 신간 ‘옛 그림 보면 옛 생각이 난다’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그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은 계절에 맞게 그림을 소개한 뒤 제목과 작가를 간략히 알려줘, 한 호흡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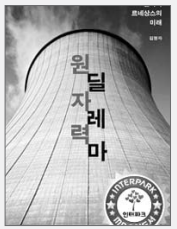
했다. 또 그림에 담긴 의미와 정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곁들이는 식으로 구성됐고, 미술사적 정보 전달보다는 그림이 주는 정취를 맛깔스런 문장으로 그려낸다. 저자는 정조의 ‘들국화’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위로 겨우들하고, 아래로 배부르게 짙은 이룬 꽃과 가운데 얼굴만 살짝 들이민 꽃이 잘도 어울려 건드러진 구도를 이룬다. 농담이 잊길래도 활짝 핀 꽃의 낮빛은 조금 함초롬하다. 아성의 정취가 서린 참사탕스런 그림이다.” <현암사·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신간

▲리스트 송=출간 전 영화가 먼저 제작돼 화제가 된 ‘노트북’ ‘디어존’ 등 로맨스 소설 베스트셀러 작가 니콜라스 스킨스의 최신 성장소설. 부모의 이혼 후 분노와 반항기로 몽친 열 일곱 살 소녀의 첫 사랑을 통해 부모와의 재회를 그렸다. 로맨스 뿐만 아니라, 10대 소녀의 성장과 방향, 가족 사이의 소통이아가가 덧칠해져 아련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해준다. <문학수첩·1만3000원>



▲원자력 딜레마=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배경과 현황, 미래에 대해 전망한다. 후쿠시마 원전 비상 사태 이후 흔들리는 원자력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파헤친다. 저자는 원자력이 궁극적인 미래의 에너지도, 당장 폐기해야 할 악마의 에너지도 아니라며 원자력 딜레마를 풀 에너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이언스북스·2만원>



▲황토=‘태백산맥’의 소설가 조정래(68)씨가 1974년 발표한 중편을 장편으로 다시 출간했다. 원고지 200여 매에 이르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문장을 다듬어 전면 개작했다. 일제강점 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며 아버지가 각기 다른 세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굴곡진 삶을 다이나믹하게 그렸다. <해냄·1만2800원>



▲한국을 빛낸 선사들=동국대 석학과 교수로 있는 현각 스님이 통일신라 원효 스님부터 고려 말 내용 스님에 이르기까지 선(禪)이라는 새로운 기풍을 국내 불교계에 불어넣은 36명의 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중국에 유학을 가진 했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중국 스님들과 실력을 겨루었던 스님들, 원효 스님 당시 중국에서 유학한 승려와 신도들의 공부 이야기도 재미있다. 이들 승려들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삶을 일깨워 준다. <한결음·더·1만3000원>



▲건축=건축사 이관석씨가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1887~1965년)가 건축에 대해 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 “건축 정신은 오직 물질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로 생겨난다”고 말했던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 대한 정의를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건축으로 나눠 들여다 본다. <동녘·1만4000원>

▲나비, 사바나로 날다=2002년 중편소설 ‘원더풀 패밀리’로 실존문학신인상을 받으며 단단한 강령(51)씨의 첫 장편소설. 2만여 행에 이르는 1000여 편의 시조를 소설적 어법으로 차용한 형식이 이채롭다. 한국 대추리와 이라크의 작은 마을 합다나를 오가며 미국이 지지하는 전쟁과 학살을 고발하고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았다. <이아기마을·1만4500원>

▲개구리 합창단=합창단원이 되고자하는 개구리들의 이야기이다. 몸집이 작은 무시와 노래를 잘못하는 베라라는 합창단원이 되고자 시련을 치렀지만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둘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합창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개구리들의 명랑한 노래와 익살스런 표정을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해 경쾌하다. <미래아이·9000원>

▲낙타가 도서관을 지고 다니는 나라?=  
“먼 나라 별별 동물 이야기” 2탄. 이동도서관 역할을 하는 낙타, 모기약을 바르는 원숭이, 한밤중에 꼬리등을 달고 외출하는 고양이 등 흥미로운 동물 이야기를 담았다. 각 동물이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따라 독특한 생존법을 터득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시공주니어·9500원>

▲예뻐지고 싶은 거미 소녀=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상처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이를 모두를 위한 책이다. 무서운 사고로 고아가 된 거미 ‘아리안’은 왜 거미가 사람들의 마음을 받는 지 알고 있다. 바로 거미가

꿈꿨기 때문. 아리안은 칠성장파벌레처럼 예쁜 벌레가 되고자 ‘변신 마법사’ 사슴벌레 선생님께서 예뻐지는 수술을 받기로 한다. <책속독고기·8500원>

▲내 이름은 온리원=  
학교에 입학해서도 엄마 손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동안 온리원은 모든 일을 엄마의 도움으로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온리원은 엄마가 도와준 미술 숙제를 혼자 했다고 거짓말 한다. 그 날 밤 온리원은 무서워서 시한 꿈을 꾸게 되는데... <예공·9000원>

▲꼬르륵=이성철씨의 2008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동화 부문 당선작을 그림책으로 각색했다. 가난한 형편에서도 자신의 것을 때어내 남을 돕는 따뜻한 이웃들의 모습을 그렸다. 일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는 일곱 살 ‘동동이’에게 자장면을 시켜주는 옆집 할머니, 동동이를 자장면을 시켜주고 물로 끼니를 때우는 할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대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진다. <피란자전거·9800원>

## 어린이 책꽂이